

## 제8회 KOWINNER 한국국제컨벤션 관련 기사 모음 (파이낸스투데이)

HOME > City&Global > 부산

### 제8회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 국제컨벤션 개최

안기환 기자 | 승인 2023.09.04 16:35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전 세계 코위너 한인여성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 논의

[안기환 기자]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사장 김순옥)은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Together, Rebound with hope”를 주제로 제8회 KOWINNER 한국국제컨벤션을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벤션 행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며, 코위너(KOWINNER) 회원 간 교류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 리더 및 차세대 여성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해외 지역별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순옥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

국내외 참가자들은 기초연설, 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및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통해 KOWID-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언택트 등의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에 맞춰 한인여성들의 리더십과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참가자들은 기조연설, 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및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통해 통해 KOWID-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언택트 등의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에 맞춰한 인여성들의 리더십과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기조연설은 (9일 오전) “꽃을 보듯 나를 본다”및“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Together, Rebound with Hope”라는 주제로 두분의 연설자가 각각 40여분씩 연설할 예정이다.

희망장학사업은 미래의 여성지로서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전세계 코위너 차세대 여성리더들에게 장학금을 통해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및 연대 강화를 주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번 2023 코위너 희망장학금은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30명의 여대생에게 희망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9일 오후)은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K-Food의 새로운 비전과 인생의 미래, 현명한 리더의 덕목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에서는, “글로벌 한인 차세대 여성 리더들의 도전과 성장”이라는 주제로변화와 미래, 그리고 진화하는 여성리더십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에서는 경제·경영,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한인 여성들이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협력을 통한 분야별 리더십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토의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후, 글로벌 네트워킹 만찬과 국제교류의 시간에서는 제8회 코위너 한국국제컨벤션 하이라이트 영상을 관람하면서 각국의 쇼케이스 및 “나도 가수다!”등의 장기자랑 등으로 코위너 회원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예정이다.

김순옥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은 “4년만에 대면으로 치루어지는 이번 컨벤션이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한인여성 지도자(리더)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국내외 한인여성 간 교류와 연대를 위해 지난 16년간 명실상부한 한인여성교류의 중심으로 자리잡아온 코위너의 한인 여성들이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며 차세대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를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특별히 부산에서 국제컨벤션을 개최한 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되길 바란다”며 2023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기한 기자

(뉴스시스)

인쇄하기

닫기

NEWSIS 지방 > 부산

## 세계한민족여성재단, 4년 만에 부산서 컨벤션 행사

등록 2023.09.05 16:13:46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제8회 코위너 한국 국제 컨벤션 및  
2023 희망장학금 수여식**

2023.9.8(금) - 10(일) 롯데호텔 한국 부산

**KOWINNER**

주최: 세계한민족여성재단 Korean Women's International Foundation  
Kowinner.com

[부산=뉴시스]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Rebound with hope'를 주제로 제8회 코위너(KOWINNER) 한국국제컨벤션을 부산 부산진구의 롯데호텔부산에서 개최한다. (포스터=세계한민족여성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Rebound with hope'를 주제로 제8회 코위너(KOWINNER) 한국국제컨벤션을 부산 부산진구의 롯데호텔부산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컨벤션 행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다. 코위너 회원 간 교류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 리더 및 차세대 여성 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한다. 해외 지역별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기조연설, 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및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언택트 등의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에 맞춰 한인 여성들의 리더십과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9일 오전 열리는 기조연설은 '꽃을 보듯 나를 본다' 및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Together, Rebound with Hope'이라는 주제로 두 명의 연설자가 각각 40여 분씩 연설할 예정이다.

전세계 코위너 차세대 여성리더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한다. 이번 2023 코위너 희망장학금은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30명의 여대생에게 희망장학금을 지원, 학생들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에서는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K-푸드의 새로운 비전과 인생의 미래, 현명한 리더의 덕목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은 '글로벌 한인 차세대 여성 리더들의 도전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에서는 경제·경영,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한인 여성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한다.

김순옥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치뤄지는 이번 행사가 새롭게 요구되는 한인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



##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부산서 국제 컨벤션…한인 여성 역할 논의

송고시간 | 2023-09-05 14:53



### 제8회 국제컨벤션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세계한민족여성재단(코위너·이사장 김순옥)은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을 주제로 제8회 코위너 한국 국제 컨벤션 및 2023 희망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세계한민족여성재단(코워너·이사장 김순옥)은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을 주제로 제8회 코워너 한국 국제 컨벤션 및 2023 희망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8~10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 및 차세대 여성 150여 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해외 지역별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조연설, 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및 차세대 여성 리더 포럼,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김순옥 이사장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롭게 요구되는 한인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부터 한민족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원) 대회를 매년 열고 있다.

올해 코원 대회는 오는 6~8일 여가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 참여한 일부 한인 여성들이 2007년 서울에서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 단체인 재단을 만들었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컨벤션은 2009년 호주 시드니, 2011년 홍콩·루마니아, 2013년 오스트리아 빈, 2015년 미국 워싱턴DC, 2017년 러시아 사할린, 2019년 브라질 상파울루 등에서 열렸다.

rapha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9/05 14:53 송고

(아이뉴스24)

##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부산서 제8회 국제컨벤션 연다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주제  
국내외 한인 여성 리더 150여명 참여**

2023년 09월 05일 (화) 오후 03시 28분 25초  
박성현기자 psh0926@inews24.com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Together, Rebound with hope)'을 주제로 '제8회 코위너 한국 국제컨벤션 및 2023 희망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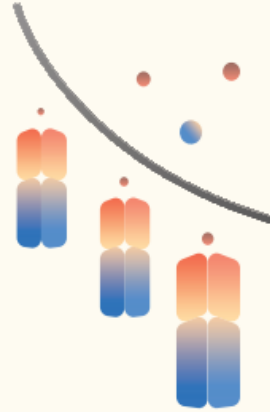
4월 세계한민족여성재단에 따르면 이번 컨벤션 행사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 리더와 차세대 여성 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외 지역별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기초연설, 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차세대 여성 리더 포럼,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아 비대면·언택트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에 맞춰 한인여성들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2023 희망장학금 수여식

2023.9.8(금) - 10(일) 롯데호텔 한국 부산



**KOWINNER**

주최: 세계한민족여성재단 Korean Women's International Foundation  
Kowinner.com

'제8회 코위너 한국 국제컨벤션 및 2023 희망장학금 수여식' 개최 포스터. [사진=세계한민족여성재단]

9일 오전 기조연설 시간에는 '꽃을 보듯 나를 본다',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을 주제로 두 명의 연설자가 각각 40여분씩 연설할 예정이다.

희망장학사업은 미래의 여성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전 세계 코위너 차세대 여성 리더들에게 장학금을 통해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와 연대 강화를 주 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2023 코위너 희망장학금은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30명의 여대생에게 희망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의 꿈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9일 오후에 진행되는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은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을 주제로 K-Food의 새로운 비전과 인생의 미래, 현명한 리더의 덕목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차세대 여성 리더 포럼에서는 '글로벌 한인 차세대 여성 리더들의 도전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변화와 미래, 그리고 진화하는 여성 리더십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에서는 경제-경영,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한인 여성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협력을 통한 분야별 리더십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토의 후 도출된 결과들을 발표한다.

글로벌 네트워킹 만찬과 국제교류의 시간에서는 제8회 코위너 한국국제컨벤션 하이라이트 영상을 관람하면서 각국의 쇼케이스와 '나도 가수다' 등의 장기자랑 등으로 코위너 회원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예정이다.

김순옥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컨벤션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요구되는 한인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특별히 부산에서 국제컨벤션을 개최한 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

(psh0926@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애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제뉴스)

HOME > 전국 > 부산

#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제8회 KOWINNER 국제컨벤션 부산서 3일간 개최

✎ 김옥빈 기자 | ⓒ 승인 2023.09.05 14:36

## 전 세계 코위너 한인 여성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 논의

### 2023 희망장학금 수여식도 진행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은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Together, Rebound with hope"를 주제로 '제8회 KOWINNER 한국국제컨벤션'을 오는 8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며, 코위너(KOWINNER) 회원 간 교류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리더와 차세대 여성 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해, 해외 지역별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내외 참가자들은 기조연설, 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및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통해 KOVID-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언택트 등의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에 맞춰, 한인 여성들의 리더십과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9일 오전 기조연설 시간에는 "꽃을 보듯 나를 본다"와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Together, Rebound with Hope"라는 주제로, 두 명의 연설자가 각각 40여 분씩 연설할 예정이다

'희망장학사업'은 미래의 여성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전 세계 코위너 차세대 여성리더들에게 장학금을 통해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와 연대 강화를 주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2023 코위너 희망장학금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30명의 여대생에게 희망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의 꿈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9일 오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에서는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K-Food의 새로운 비전과 인생의 미래, 현명한 리더의 덕목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에서는 "글로벌 한인 차세대 여성리더들의 도전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변화와 미래, 그리고 진화하는 여성리더십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에서는 경제·경영,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한인 여성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협력을 통한 분야별 리더십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토의 후 도출된 결과들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후, 글로벌 네트워킹 만찬과 국제교류의 시간에서는 제8회 코위너 한국국제컨벤션 하이라이트 영상을 관람하면서, 각국의 쇼케이스 및 '나도 가수다!' 등의 장기자랑 등으로 코위너 회원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예정이다.

김순옥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컨벤션이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요구되는 한인 여성 지도자(리더)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특별히 부산에서 국제컨벤션을 개최한 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3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기원을 잊지 않고 언급했다.



김옥빈 기자 obkim5153@naver.com

(노컷뉴스)

**노컷**뉴스

인쇄하기

닫기

##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부산서 국제컨벤션..."함께 희망의 재도약"

2023-09-04 18:35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대면으로 열려  
국내외 한인 여성 리더 150여명 참석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위해 부산서 개최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이 오는 8일부터 3일간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Together, Rebound with hope)을 주제로 제8회 국제컨벤션을 부산에서 개최한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이 오는 8일부터 3일간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Together, Rebound with hope)을 주제로 제8회 국제컨벤션을 부산에서 개최한다.

4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컨벤션 행사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 리더 및 차세대 여성 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외 지역별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기초연설, 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및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언택트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에 맞춰 한인여성들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 김순옥 이사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컨벤션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요구되는 한인여성 지도자(리더)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특별히 부산에서 국제컨벤션을 개최한 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6006198>

(부산일보)

**BUSAN**부산일보  
.com

##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부산서 컨벤션 개최 8~10일 롯데호텔 부산서 열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입력 : 2023-09-05 18:25:45





세계한민족여성재단 한국 컨벤션 행사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부산에서 개최된다.

5일 세계한민족여성재단에 따르면 오는 8~10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부산에서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 Together, Rebound with hope'를 주제로 제8회 KOWINNER(코위너, 세계한민족여성재단) 한국국제컨벤션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데, 코위너 회원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한인 여성 리더와 차세대 여성 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기조연설, 희망장학금 전달식, 글로벌차세대 여성리더 포럼, 관심사별 소그룹 멘토링,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2023 코위너 희망장학금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 30명의 여자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이날 전달식이 열린다.

9일 열리는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은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을 주제로 K푸드의 새로운 비전, 현명한 리더의 덕목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은 '글로벌 한인 차세대 여성 리더들의 도전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화하는 여성 리더십에 대해 논의한다. 글로벌 네트워킹 만찬과 국제 교류 시간에는 각국 쇼케이스를 비롯해 장기 자랑 행사 '나도 가수다!'를 열어 분위기를 띄운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 김순옥 이사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특별히 부산에서 국제컨벤션을 개최한다"며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새롭게 필요한 한인 여성 지도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월드코리안뉴스)

HOME > 뉴스 > 국내뉴스

##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부산에서 제8회 KOWINNER 국제컨벤션

✎ 이석호 기자 | ⌚ 승인 2023.09.05 10:55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 이사장 김순옥)이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에서 제8회 KOWINNER 국제컨벤션을 연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은 여성가족부가 해마다 개최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한인 여성들이 2007년에 만든 비영리 단체다. 한인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의 KOWIN 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한민족 여성들의 교류와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KOWINNER를 조직했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에 따르면 4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여는 이번 한국국제컨벤션에는 국내외 한인 여성 150여 명이 참가한다. 재단은 이 행사에서 글로벌 및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 소그룹 멘토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9일 오전에는 두 연사가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 제목은 ‘나와 꽃을 보듯 나를 본다’, ‘함께 하는 희망의 재도약’이다. 행사 중에는 희망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된다. 재단은 한국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 30여 명에게 희망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나도 가수다’라는 장기 자랑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부산시와 함께 ‘KOWINNER 국제컨벤션’이 열리기 전인 9월6일부터 8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들과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을 포함해 500여 명이 참가한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에 따르면 4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여는 이번 한국국제컨벤션에는 국내외 한인 여성 150여 명이 참가한다. 재단은 이 행사에서 글로벌 및 차세대 여성리더 포럼, 소그룹 멘토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9일 오전에는 두 연사가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 제목은 '나와 꽃을 보듯 나를 본다', '함께하는 희망의 재도약'이다. 행사 중에는 희망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된다. 재단은 한국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 30여 명에게 희망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나도 가수다'라는 장기 자랑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부산시와 함께 'KOWINNER 국제컨벤션'이 열리기 전인 9월6일부터 8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들과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을 포함해 500여 명이 참가한다.



2019년 브라질에서 열린 KOWINNER 국제컨벤션[사진=세계한민족여성재단]

저작권자 © 월드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호 기자